

● ●

인터뷰

제84회 포장기술사

Packaging Professional Engineer



(사)한국포장기술사회(회장 이명훈)는 제84회 기술사 자격시험에서 8명의 포장 기술사가 합격했다고 전했다.

올해 탄생한 포장기술사는 ▲ 애경산업 김근영 차장 ▲ 삼성전자 김동준 대리 ▲ 풀무원 선인곤 과장 ▲ 동원F&B 선준호 차장 ▲ 소프트팩앤텍 유하경 대표 ▲ (주)인테크씨엔에스 이상재 대표 ▲ 두리포장산업 이성 대표 ▲ 한솔그룹 최승진 과장 등으로, 국내 포장기술사는 총 75명으로 늘어났다.

포장기술사는 포장분야의 최고 기술전문사로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포장의 기술적 발전과 적합한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내 포장기술사는 (사)한국포장기술사회를 중심으로 국내 포장 문화 진흥에 주력하고 있다.

- 편집자 주 -

포장기술사 일원으로 포장산업 발전 일조



김근영
애경산업 차장

“포장기술사에 합격하게 되어 우선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시간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은 가족과 함께,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신 저희 공장장님, 부서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합격의 영광과 함께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만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포장기술사 자격시험에서 합격한 애경산업 김근영 차장은 입사 당시 포장개발팀에서 근무하게 된 계기로 포장업계에 종사하게 됐고, 현재는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애경산업 포장개발팀(현 디자인센터)에서는 수년 전부터 포장기술사들을 배출하고 있다.

올해 그 전통을 잇게 된 김근영 차장은 “주위 선배님들의 권유와 부서장님의 배려로 포장기술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포장기술사 시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일부 분야는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생소한 분야라 어려움이 많았다는 김근영 차장은 시험 준비에 익숙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그는 포장기술사 도전으로 전반적인 포장을 섭렵하는 기회를 가졌을 뿐 아니라 평소 부족했던 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 할 수 있어서 자기 계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김근영 차장은 포장기술사로서 현재의 주 업무인 품질분야 안정화를 위한 포장 관련 협력사 기술 개발방향 검토는 물론, 원활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기관, 단체, 회사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그는 포장기술사회의 일원으로도 열심히 활동하여 포장업계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근영 차장은 “포장업에 종사하면서 때로는 이윤배반적이거나 환경을 무시하는 포장설계를 진행할 때와 문제 발생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때 난감하다”며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포장의 매력”이라고 말했다.

포장업계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과 고민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포장단체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길 바란다”는 김근영 차장.

포장분야에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낼수 있도록 포장기술사 일원으로서 포장업계 발전에 일조할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포장학과 출신 동문 및 후배들에게 힘 줄 터



김동준
삼성전자 대리

“스무살 포장학도 시절부터 꿈꾸어 오던 기술사의 꿈을 이루게 되어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이 영광을 저를 가르쳐 주신 경북과학대학 산업포장학과 교수님들과 동문 및 후배들에게 돌리며, 특히 저의 아내와 합격의 기쁨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제 84회 포장기술사 자격시험에서 합격한 삼성전자 김동준 대리는 현재 완충포장시험평가를 통한 포장 개선과 규격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 대리는 삼성전자 10여개가 넘는 사업부를 지

원하는 총괄부서에 속해 있으며, 사업부 포장담당자들과 중요 과제에 대한 포장 개선업무와 실제 제품의 유통경로에 대한 조사를 통한 시험규격화를 진행하고 있고 사업부 포장담당자들의 포장 교육 진행 업무를 맡고 있다.

1993년 국내 최초의 경북과학대학 포장학과 1회 졸업생인 그는 현업에서 포장기술인으로써의 꿈을 키워 왔다.

포장관리사 및 포장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자연스럽게 포장기술사에 도전하게 된 것.

국가 기술자격시험에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포장기술사 자격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함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 그는 “국내 포장학과 출신으로서 후배들과 동문들에게 좀 더 힘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장기술사로서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김 대리는 “포장을 생산의 최후 단계로 인식하지 말고, 최초 단계에서부터 포장의 치수 표준화를 통해 제품운송과 물류비용과 연관된 패키지 디자인이 되는 프로세서가 정착 되어 한다”며 “아울러 포장재료 업계에서도 신규 포장재의 개발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동준 대리는 “전자제품 업계에서 포장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전자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중에 포장재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다소 낮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아쉬움을 토로 하면서 “그러나 포장 없이 제품을 판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포장재가 차지하는 가격적인 비중과, 고유가 시대에 물류비 절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점차적으로 핵심 부품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여 자부심을 가지고 현업에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포장기술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기술력을 키울 수 있게 포장 관련 단체에서 좀더 앞장서길 바란다는 김동준 대리.

포장기술사 합격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는 포장학도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현업에서 실력을 더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포장기술사로서 후학 양성에 기여할 터



선인곤
플무원 과장

“수험생의 입장이되면 누구나 심적인 부담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아쉬움이 많아 제 스스로 부족함을 느꼈는데 이렇게 합격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 84회 포장기술사 자격시험에서 합격한 플무원 선인곤 과장은 현재 식품분야에서 신선식품 부문에 주력하며 월빙식단 식품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따라 그에 걸맞은 포장을 개발하고 있다.

포장의 분야는 광범위하다. 선인곤 과장은 “항상 제품개발을 하면서 느끼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현업분야에서는 필요한 부분은 정보 search 및 문헌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을 알게 되었고, 포장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해 공부를 한다면 광범위한 포장 분야를 알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번 시험을 도전하게 됐다.

이번 포장기술사를 준비하면서 현업을 병행하면

서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선 과장은 회 사업무의 연장으로 시간 활용이 가장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жат은 야근과 시간의 부족함 속에서 시험 준비를 해야한다는 부담으로 누구보다도 아쉬움이 많았던 선 과장은 합격 소식을 듣고 그 기쁨이 더욱 컸다고.

선인곤 과장은 앞으로 포장기술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뚜렷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포장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생산자 위주로 산업을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여러 선배기술사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소비자 지향적인 포장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포장기술사의 위치에서 좁게는 소속된 위상을 높여서 포장과 관련된 부분은 전적으로 포장개발자에게 의지하게 하고 넓게는 신규로 연구 개발한 것을 산업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공유할 계획입니다.”

포장업에 종사하면서 새로운 포장기법을 개발하여 제품에 접목시켜 소비자 지향적인 포장재가 널리 알려진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는 선인곤 과장은 “포장업계는 벤치마킹이나 국내외의 업체와 제휴를 통해서 나름대로 신기술 및 소재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를 국산화, 대량 생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산화는 개발기간이 지연되거나 미약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포장업계에서는 더욱 포장을 널리 확산시켜 성장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장은 무궁한 개발이 가능한 분야라는 선인곤 과장. 그는 앞으로 포장기술사로서 포장산업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후학을 양성할 수 있도록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장 전문 기술사 양성 확대 돼야



선준호

(주)동원F&B 차장

“기쁘기도 하고,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이제 갓 포장 산업에 입문하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 동안 많은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항상 자부심을 갖고 노력하는 기술사로서 포장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84회 포장기술사 자격시험에서 합격한 동원 F&B 선준호 차장은 대성중앙연구소(구, 미원중앙연구소)에서 처음 포장에 입문, 포장재의 self-life 연구 등 보존성 테스트 및 포장개발 업무를 수행해 왔다.

현재는 (주)동원F&B에서 포장표준화를 구현, 약 10억원의 원가절감 및 파렛트의 표준화를 통한 물류효율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신제품의 포장개발 및 포장개선, 원가절감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소포장에서부터 식품포장, 기계포장, 중량물포장까지 포장의 범위는 광범위한 것이 사실이다.

선 차장은 “처음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주위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포장기술편람, 포장관련 월간지, 이슈화된 포장산업의 문제점들의 리뷰, 환경관련 포장법규들의 이해와 기업체에서 쌓은 실무경험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포장기술사 시험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포장인의 한사람으로서 능력개발을 위해서라도 항상 포장기술사에 도전하겠다는 목표를 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그는 1차 시험문제가 포장분야별

로 골고루 출제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특정분야만 아는 포장기술사가 아니라 포장 전반을 알고 행하는 포장기술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국내의 포장산업은 대기업 관련사를 제외하고는 인프라 면에서 대부분은 영세한 것이 현실이다. 그는 정부 및 포장관련 단체 차원에서 포장산업 발전을 위한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우수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친환경포장을 적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및 기타 혜택을 주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포장기술사 뿐만 아니라 업무관련 라이선스 취득자를 우대해주고 인정해 주는 기업문화가 정착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가치를 느끼고, 자긍심을 가질 것 같다는 선준호 차장.

포장관련 영세업체에 아낌 없는 기술적인 지원을 해 주고 상호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포장산업의 발전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기술사들의 몫이라고 말한 그는 앞으로 작은 능력이나마 포장산업의 영역 확대 및 질적 발전에 밀거름이 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진국의 앞선 포장기술 전파주력



유하경

소프트팩앤텍 대표

"포장분야는 융합산업으로 많은 인접분야와 함께 해야 하고 공생, 상생의 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선진국형 산업으로 그 일에 매진하려는

일에 포장기술사로서 가일층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84회 포장기술사 자격시험에서 합격한 유하경 소프트팩앤텍 대표는 "포장분야에서 일을 한지 16여년 만에 이제 포장분야에 문을 열고 첫발을 내딛는 기분"이라며 합격의 기쁨을 나타냈다.

현재 유하경 대표는 그라비아 컨버팅분야(인쇄, 코팅, 디자인)로 식품, 의약품, 산업용품의 포장재 생산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적인 포장재 생산과 친환경포장과 RFID, 태양전지모듈 개발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실무일을 하면서 경험한 것을 정리 해보고 싶어 포장기술사 시험준비를 하게 됐다"는 그는 기술문제 위주로 정리해가며 공부를 했던 것이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유하경 대표는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분야의 시험을 준비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포장기술사도 좀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되어 시대적인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 당면한 포장업계의 과제에 도움이 되는 전문인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최근의 포장업계는 유례없는 원자재가 상승과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 대표는 최근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힘을 모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포장 관련단체와 업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혜롭게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하면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춘 포장인 되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련업계에서 고생하는 포장관련 중소기업인들과 포장산업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 유하경 포장기술사. 선진국의 앞선 기술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피력한 그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업계와 단체 포장 자체 발전 위해 단합해야



이상재

(주)인테크씨엔에스 대표이사

제84회 포장기술사 시험에 합격한 이상재 (주)인테크씨엔에스 대표이사는 “포장기술사라는 자격 획득은 지난 20여년간의 중량물 포장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밝히면서 “중량물 포장인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후학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중량물 및 수출포장 전문회사인 (주)인테크씨엔에스를 이끌고 있는 이상재 사장은 현재 제조보다는 컨설팅에 더 많은 시간을 내어 산업포장(중량물포장)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연포장에 대한 지식이 짧아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많은 분야를 접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는 그는 포장이라는 분야가 광범위하고 전문적이다보니 쉽지는 않은 과정이었다고 회상했다. 앞으로 더 많은 산업포장의 인력들이 시험에 응시하며 기술을 더 발전해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그는 포장기술사 자격시험이 시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편의성을 부여한 시험으로의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재 사장은 난립하고 있는 업체와 단체가 “포장” 자체의 발전을 위해 단합하여 순수한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포장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수출포장의 선진화를 추구해 온 인테크씨엔에스 이상재 사장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던 중량물 포장의 시스템화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중량물 포장의 적정화를 통해 업계의 자동화를 실현해 온 이상재 포장기술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포장을 배우고자 하는 후배 양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포장 전문야 아우르는 자격시험 되길



최승진

한솔그룹
패키징사업추진 T/F 과장

“부족한 제가 합격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솔그룹 패키징사업추진 T/F 최승진 과장은 연세대학교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한 후 5년여간 제약분야에서 업무 경험을 쌓았으며 이후 Michigan State University 의 School of Packaging에서 박사학위를 획득했다.

최승진 과장은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엔지니어로서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 포장기술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전한다. 그러나 준비기간이 짧아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는 그는 시험문제가 가끔 너무 편협된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으며, 좀 더 포괄적인 문제가 출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 최 과장은 한솔그룹의 패키징 개발에 역량을 발휘, 포장기술사로서의 면모를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올해 포장기술사 자격시험에서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이 내년에는 꼭 합격하길 바란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포장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나갈 최승진 포장기술사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ko**